

세계도시동향

헤드라인뉴스	1	다주택 보유자 장기 공실주택에 공실세	밴쿠버
문화·관광	2	부활절 연휴에 어린이 대상 박물관 캠퍼스	토스카나
사회·복지	4	아동·가족 관련 DB 수집-정책제안 연구기관 설립	파리
	6	‘장애, 포용 그리고 접근권’ 정책 30여개 실천과제 제안	파리
도시교통	8	도시고속철도 제2 간선구간 16년만에 ‘첫 삽’	원헨
도시계획·주택	10	‘부담가능주택 9만호 공급’ 3개 재정지원 기금 조성	런던
뉴스인사이드	15	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	뉴욕 외



다주택 보유자 장기 공실주택에 공실세

임대 안정화 목적 ...연간 최소 6개월 임대해야

캐나다 밴쿠버시 / 도시계획·주택

- 캐나다 밴쿠버시는 도시 내 주택난이 심각해지고 주거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내 모든 주택이 적절한 가격에 활용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거 시설에 ‘공실세’(Empty Homes Tax)를 부과하기로 결정
- 배경
 - “시는 부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살 집을 찾기 위해 애쓰는 시민들을 두고 1년 가까이 비워둔 채로 있는 1만 8백여 채의 주택들을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.”
 - 밴쿠버 시장 그레고어 로버트슨(Gregor Robertson)
 - 집은 투자 상품보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
 - 공실세 부과로 수천 채의 임대용 주택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될 것을 기대
- 주요 내용
 -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1년에 최소 6개월(반드시 연속 임대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) 임대용으로 활용할 것을 법적으로 권고
 - 공실세는 보유세와 별도로 주택가격의 1%를 연 단위로 납부
 - 2017년 3월 현재 공실 상태인 주택은 올 7월 1일 전까지 반드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함
- 다주택 보유자를 위한 지원
 - 시는 기존 공실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다주택 보유자를 위해 법적인 조언을 비롯해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

<http://vancouver.ca/news-calendar/reminder-for-owners-of-vancouver-s-empty-and-under-utilized-homes.aspx>

<http://vancouver.ca/home-property-development/empty-homes-tax.aspx>

김민희 통신원, minhee.kim.crp@gmail.com

문화·관광

부활절 연휴에 어린이 대상 박물관 캠퍼스

이탈리아 토스카나주 / 문화·관광

-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1주일 동안 이어지는 부활절 방학·휴가 기간을 어린이들이 지루하게 보내지 않도록 ‘박물관 캠퍼스’(Campus al Museo) 프로그램을 기획
- 개요
 - 이탈리아에서 부활절은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중요한 날로, 길게는 1주일 동안 방학·휴가가 이어짐
 - 토스카나주에서는 긴 부활절 방학을 보내는 어린이들을 위해 시 박물관에서 다양한 문화·예술 행사를 3년째 시행 중
- 주요 내용
 - 올해 부활절(4월 16일) 연휴에 맞춰 토스카나주 소속 도시의 박물관에서 레크레이션, 교육, 게임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
 - 토스카나주의 모든 도시(9개) 내 총 23개의 박물관이 참여
 - 박물관 전문 교육사가 주제에 따라 다양하고 수준 높은 체험을 제공
 - 6~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도 포함되어 가족 문화 활동으로 인기가 높음
 - 박물관 특성에 따라 현대미술·디자인·역사·자연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
 - 각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예약
 - 이탈리아 사회적기업 ‘유니콥’(Unicoop)의 멤버는 10% 할인
- 피렌체 박물관 예시
 - 피렌체 자연사 박물관(Museo di storia naturale): 화석학, 고고학에 대한 워크숍 개최와 식물원 방문
 - 호른 박물관(Museo Horne): 영국의 수집가 허버트 호른(Herbert Horne)이 평생 수집한 가구와 디자인 제품을 피렌체에 기증하여 설립한 박물관임. 호른의 수집품을 모델로 하여 배워보는 디자인·드로잉 워크숍 진행

- 노베첸토 미술관(Museo Novecento): 새롭게 개관한 피렌체의 현대미술관으로, 색감·형태·소리 등을 직접 체험해 보고 어린이들이 현대미술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워크숍 개최

- 성과

- 주정부가 어린이 교육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프로그램이며, 학부모의 참여와 만족도 등 반응이 좋아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개최할 계획
- 현재는 23개 박물관이 참여하지만, 다음 시즌에는 35개 이상의 박물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

<http://www.regione.toscana.it/-/s-passo-al-museo-in-vacanza-dalla-scuola-e-vietato-annoiars-1?r>

http://www.regione.toscana.it/documents/10180/14176353/museo_storia_nat_fi.pdf/4554fb1c-d94c-4ca6-819b-c4d4abd171f0

<http://www.regione.toscana.it/documents/10180/14176353/Campus+pasquale+2017+Musei+Civici+Fiorentini.pdf/39b86f4d-96f7-44c4-a75f-e0d7f20bf5eb>

김예름 통신원, yereumkim@gmail.com

사회·복지

아동·가족 관련 DB 수집-정책제안 연구기관 설립

프랑스 파리市 / 사회·복지

- 프랑스 파리市는 현재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41만 명의 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, 시에 적합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인 ‘팜랩’(FamLab: Family + Laboratory의 축약어)을 3월 22일 설립
- 개요
 - 다양하고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로 ‘아동과 가족의 파리’를 만드는 데 기여
 - 주요 활동은 아동·가족 관련 연구, 정책 제언과 기존 정책의 평가, 아동·가족 관련 정책의 총괄 지휘
 - 국회의원, CAF(주거가족수당 관리공단), 구호단체 활동가, 시민단체 활동가, 아동 전문가로 구성
 - 아동·가족 관련 자문위원회를 ‘팜랩’에 통합하여 관련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비중 있게 다룰 예정
 - 시정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장하는 아동·가족을 위한 최소 필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‘팜랩’의 자료를 적극 활용할 예정
- 배경: 2016년 현재 파리의 아동과 가족 현황
 - 파리지 인구 225만 명 중 아동(0~18세)은 41만 명
 - 최소 1명의 아동(25세 이하)을 책임지고 있는 가정은 총 26만 5,879가구
 - 7만 8,452가구(파리 전체의 30%, 프랑스 평균 22.3%)는 한부모 가구
 - 3세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의 2/3는 맞벌이 혹은 직업(파트타임 포함)이 있는 한부모
 - 22%의 아동이 불안정한 생활조건 속에서 살고 있음
 - 한부모 가정의 35%가 빈곤가정이고, 전체 가정의 18%는 최저 소득 이하
 - 아동구호 단체에서 5천 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고, 그중 1,500명은 외국인

- ‘팜랩’의 최초 연구 결과
 - 2,500명의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구와 대면 인터뷰(특히 아동의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한)를 진행
 - 파리 부모들의 우선순위 두 가지
 - 1) 아동의 안락한 삶을 바라는 동시에 학업성취에 대한 각별한 관심
 - 2)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의 조화에 대한 갈망
 - 설문조사 결과 파리의 양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
 - 파리가 아이를 키우기에 ‘완전히’ 또는 ‘상당히’ 좋은 곳이라고 판단한 부모는 64%이고 ‘전혀 좋지 않은 곳’이라고 응답한 부모는 4%
 -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‘대기 질’(43%)과 ‘주거’(31%)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예정

- ‘아동과 가족의 파리’를 만들기 위한 파리의 10가지 실천
 -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25주년을 맞이해 안 이달고(Anne Hidalgo) 시장은 ‘아동을 위한 파리 만들기’ 정책을 구상하고 10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
 - 모든 아동이 파리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잘 클 수 있도록 만들기
 - ① 건강하게 자라기, ② 일관된 교육과정 속에서 잠재력을 실현하기 ③ 시민이 되기, ④ 자율성을 학습하기
 - 파리의 모든 부모와 함께하기
 - ⑤ 직장 생활 및 가정 생활과 개인의 삶의 조화를 돕기, ⑥ 파리가 부모들의 동반자이자 조언자가 되어주기
 - 아동과 가족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좋은 도시 만들기
 - ⑦ 더욱 환경친화적인 도시 만들기, ⑧ 가족적 삶에 적합한 도시 만들기
 - 직업적 성공의 조건을 마련해주기
 - ⑨ 지역적·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싸우기, ⑩ 취약계층의 삶을 돌보기

<http://www.paris.fr/actualites/decouvrez-le-famlab-un-observatoire-sur-l-enfance-et-les-familles-4668>

배세진 통신원, prophet1013@gmail.com

‘장애, 포용 그리고 접근권’ 정책 30여개 실천과제 제안

프랑스 파리市 / 사회·복지

- 프랑스 파리市는 2017년 3월 시의회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되는 ‘장애, 포용 그리고 접근권’ 정책에 관한 30여 개의 실천과제를 제안
- 개요
 - ‘포용의 파리’(Un Paris inclusif)를 추구
 - 파리를 장애가 있는 시민을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정책
 - 각 개인이 도시의 모든 기능을 누릴 수 있는 도시
 - 모든 이가 도시의 행정·사회복지·문화·스포츠 활동 등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도시
 -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차별 없이 대중교육을 받고 직업과 미래를 계획하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도시
 - 정책적 목적
 - 1) 장애인들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
 - 2) 장애가 있는 시민의 물질적 필요에 대한 시 차원의 이해 증진
 - 3) 장애인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
- 주요 내용
 -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파리를 만들기 위한 9가지 주요 실천 계획 수립
 - 장애인들의 특수한 필요에 적합한 파리 시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실천 계획
 -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이 공적 공간, 스포츠·문화, 시민권의 영역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정책
 - 1) 장애인 지원부(MDPH: Maison dé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ées)를 편성해 사용 가능한 인적·물적 자원 정보를 구축하고 시민과 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
 - 2) 2021년까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900여 개 추가
 - 3) 구마다 장애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교류와 참여를 지원

- 노동과 관련한 세 가지 실천 계획
 - 장애인에게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직업적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
 - 4) 장애인을 아동기부터 포용할 수 있도록, 모든 아동의 자폐 검진을 추진하고 학교의 장애 아동 수용 역량을 강화
 - 5) 젊은 장애인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맞춤형 지원
 - 6) 사회적·의료적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을 개선해 개별 가정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
- 복잡한 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 계획
 - 특수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 제대로 된 의료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
 - 7) MDPH를 통해 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
 - 8) 270개 진료소와 376개 관련 기관을 설립해 의료사회복지를 강화
 - 9) 관련 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를 만들어 장애인에 대한 의료 사회사업의 '집단 협업' 실현

- 지난 정책의 성과(2011~2016년)

- 장애인의 도시 접근권 향상
 - 버스·지상 전철의 장애인 접근권을 100% 보장하고, 시각장애인을 위해 공공장소의 음성지원 시스템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
 - 2008년 이후 600여 개의 건물이 장애인 접근 가능 건물로 추가 개선
- 장애인 노동 조건 향상
-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 확충
 - 자폐 아동을 위한 전용 활동공간 215곳 설립(2020년까지 138곳 추가 예정)
 - 탁아소와 학교 시설을 개선하여 500여 명(탁아소)과 7천여 명(학교)의 장애 아동을 추가로 등록

<http://www.paris.fr/actualites/strategie-parisienne-handicap-inclusion-et-accessibilite-universelle-2021-4657>

배세진 통신원, prophet1013@gmail.com

도시교통

도시고속철도 제2 간선구간 16년만에 ‘첫 삽’

독일 뮌헨市 / 도시교통

- 독일 바이에른州的 주도 뮌헨市는 지난 4월 5일, 그동안 교통 분야의 중심 과제로 추진해 오던 도시고속철도(S-Bahn)의 제2 간선구간 건설사업을 16년 만에 착공
- 배경
 - 1972년 개통한 기존 간선구간은 당시 하루 승객 수요가 25만 명이었으나 2015년 기준 84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포화 상태에 도달
 - 2001년 5월, 시정부는 제2 간선구간 건설을 결정
 - 2026년까지 제2 간선구간을 개통해 기존 노선의 승객 수요를 분산시키고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효과 기대
- 주요 내용
 - 뮌헨시 역사상 최대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사업
 - 건설 예상 기간 9년, 총 사업비 38억 유로(4조 6천억 원)
 - 도심 중앙을 관통하는 10Km 구간에 기존 노선과 병렬하는 새로운 노선과 3개의 역사를 건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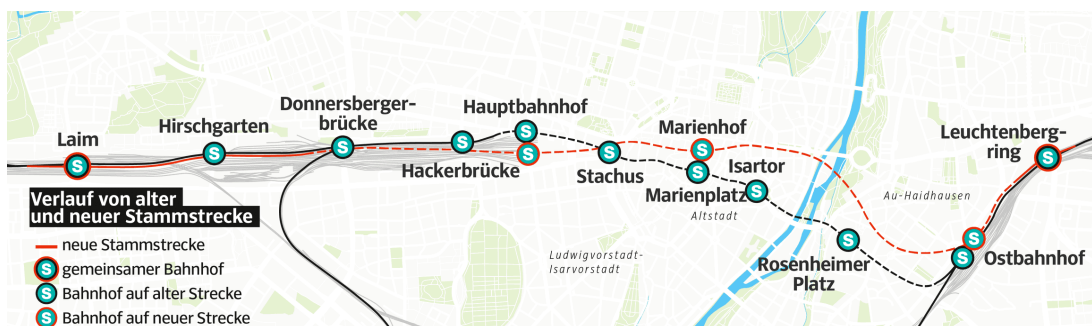


그림. 노선 계획도(밝은색이 제2 간선구간, 점선은 2개 노선 운행 구간)

- 16년간의 협의 과정
 - 이 사업은 다양한 반대의견에 부딪혔으며, 시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
 - 바이에른주 행정법원에는 이 사업과 관련된 40여 개 소송이 제기 중
 - 주된 분쟁 사유는 공사 기간 중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, 터널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
 - 최초 계획 당시보다 급증한 총사업비도 비판 대상
 - 2001년 최초 계획 당시 총사업비는 14억 마르크(8,560억 원)였으나, 오랜 설계 기간과 잦은 계획 변경으로 현재 수준으로 증가
 - 이 사업을 실행하면 바이에른주의 다른 교통사업을 할 예산이 사라진다는 비판 존재
 -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최적의 노선과 사업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
 - 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, 뮌헨시 및 독일철도주식회사가 각각 사업비를 분담
 - 이 사업을 위해 연방정부는 16억 유로(1조 9천억 원), 주정부는 13억 유로(1조 5,600억 원)를 지원
- 기타
 - 뮌헨시는 이 사업의 착공을 기념하여, 4월 5~6일 ‘그래, 하자’(Auf geht’s)라는 주제로 시민 축제를 개최

<http://www.muenchen.de/verkehr/zweite-stammstrecke-s-bahn-muenchen.html>

<http://www.muenchen.de/veranstaltungen/event/31655.html>

<http://gfx.sueddeutsche.de/apps/e836032/www>

선지원 통신원, jiwon.sun@gmail.com

도시계획·주택

‘부담가능주택 9만호 공급’ 3개 재정지원 기금 조성

영국 런던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영국 런던市는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31억 5천만 파운드(4조 4천억 원)를 배정받고, 이를 시민 소득수준과 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3개의 재정지원 기금으로 조성
 - 개요
 - 시정부는 2021년까지 적어도 9만 호의 새로운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할 계획
 - 시민들이 정말로(genuinely) 부담 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소득수준과 물가지수를 고려해 다음 3개의 재정지원 기금을 조성
 - 런던 부담가능 임대주택 기금(London Affordable Rent)
 - 런던 생활형 임대주택 기금(London Living Rent)
 - 런던 지분공유주택 기금(London Shared Ownership)
 - 이 기금은 입찰로 선정된 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
 - 보조금을 받은 주택 공급자는 공급하는 주택 물량의 50% 이상을 부담가능주택으로 제공해야 함
 - 주요 내용
 - 런던 부담가능 임대주택 기금
 -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 기금
 - 중앙정부의 부담가능주택 임대료 기준은 주변 시세의 80% 이하이지만, 런던의 비싼 주거비용을 고려해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 제시
 - 방 2개짜리 주택 기준 월 85만 원 수준
 - 주택 공급자는 ‘사회주택관리자’로 등록하고 관련 조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관리·운영하여야 함
 - 런던 생활형 임대주택 기금
 - 평균수준의 임금 노동자들이 주거비용을 절약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금

- 임대료는 자치구별로 중위가구 총소득의 1/3을 기준으로 산출
 -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, 방 2개 주택 기준 월 80만~230만 원 이내
 -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 연 소득 6만 파운드(8,375만 원) 이하이고 현재 거주 지역의 주택을 구매할만한 예금이 없는 사람
 - 공급자는 임차인의 내집마련을 도울 의무가 있음
 - 임차인은 거주 중인 주택을 언제든지 구매 혹은 ‘지분공유’(Shared Ownership) 형태로 소유할 수 있음
- 런던 지분공유주택 기금
 - 지분공유제는 영국의 주택구매 방식의 하나이며, 구매자는 주택가격의 25~75%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월 나누어 내는 형태로 소유
 - 구매 자격은 연 소득 9만 파운드(1억 2,500만 원) 이하의 런던 시민
 - ‘런던 생활형 임대주택 기금’과 ‘런던 지분공유주택 기금’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구매와 임대 계약의 시점에서 서로 조건 호환이 가능
 - 예시: ‘런던 생활형 임대주택 기금’으로 제공된 주택을 ‘지분공유’로 구매 가능

<https://www.london.gov.uk/what-we-do/housing-and-land/homes-londoners/what-homes-londoners>

<https://www.london.gov.uk/what-we-do/housing-and-land/homes-londoners/homes-londoners-affordable-homes-programme-2016-21>

<https://www.london.gov.uk/what-we-do/housing-and-land/renting/london-living-rent>

정기성 통신원, jkseong71147@gmail.com

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

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

- 미국 뉴욕市
 - 영국 런던市
 - 중국 상하이市
-

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

뉴 욱

- ‘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고 안전 증진’ 도로정비사업 착수 2017.03.21
- 뉴욕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16억 달러(1조 8천 억 원)를 지원하여 도로정비사업에 착수함. 뉴욕시 전역에 횡단보도 설치, 보도 폭 확장, 중앙분리대 설치, 자전거 도로 설치 등의 정비를 함.
<http://www1.nyc.gov/office-of-the-mayor/news/160-17/vision-zero-mayor-de-blasio-kicks-off-construction-major-street-redesigns-warm-weather-begins#/0>
- 범죄율 낮춰 10년 내 리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폐쇄 2017.03.31
- 뉴욕시는 범죄 발생률을 낮춰 감옥 수감인구를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리커스 아일랜드(Rikers Island) 교도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발표함. 이를 위해 지속적인 범죄 예방 노력으로 교도소 수감인구를 현재의 1만 명 수준에서 10년 이내에 5천 명 이하로 줄이기로 함.
<http://www1.nyc.gov/office-of-the-mayor/news/196-17/transcript-mayor-de-blasio-speaker-mark-viverito-10-year-plan-close-rikers-island>

런 던

- ‘이산화질소 줄이기’ 저공해 버스구역 첫 지정 2017.03.09
- 런던시는 이산화질소(NO₂)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, 최초로 저공해 버스구역(Low Emission Bus Zone)을 지정함. 저공해 버스구역 내에는 총 7개 노선 145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며, 2017년 3월 9일부터는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버스만 운행할 수 있음. 향후 11개의 저공해 버스구역이 추가 지정될 예정임.
<https://www.london.gov.uk/press-releases/mayoral/mayor-launches-first-low-emission-bus-zone>
- 교통 연계 편리한 교외지역에 고밀도 저렴주택 건설 2017.03.10
- 런던시는 교통 연계가 편리한 교외지역에 고밀도 신규 저렴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함. 월드스톤(Wealdstone)에 184가구를 건설하고 이 중 41%(74가구)를 저렴주택으로 제공함. 또한 토트넘 헤일(Tottenham Hale)에도 505가구를 건설하고 이 중 35%(177가구)는 저렴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함.

<https://www.london.gov.uk/press-releases/mayoral/mayors-housing-vision-takes-form-with-two-schemes>

- 웹사이트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등급 공개 2017.03.29
 - 런던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등급을 공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'cleaner vehicle checker'를 개설하기로 함. 올 가을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거의 모든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음.
- <https://www.london.gov.uk/press-releases/mayoral/mayor-unveils-polluting-vehicle-checker-scheme>

상 하 이

-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등 '2030 상하이 건강계획' 발표 2017.03.23
 - 상하이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'2030 상하이 건강계획'을 발표함. 건강증진, 만성질환 관리, 노인 돌봄서비스, 여성·어린이 건강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측면의 시민 건강 개선 계획을 수립함. 올해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개선, 건강도시 건설 등 공공보건 서비스 구축 등을 목표로 함.
- <http://www.shanghai.gov.cn/shanghai/node27118/node27818/u22ai85770.html>
- 새달부터 법정 임금 월 최저 38만 원으로 인상 2017.03.31
 - 상하이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내달부터 법정 임금을 월 최저 2,190위안(36만 원)에서 2,300위안(38만 원)으로 올리기로 함. 정규직,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 시급도 20위안(3,300원)으로 인상하고, 월간 실업보험금, 취업보조금 등도 인상함.
- <http://www.shanghai.gov.cn/shanghai/node27118/node27818/u22ai85840.html>

「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」은 뉴욕, 런던,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.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,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.

편집담당자 :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